

## 잃어버린 휴대폰, 나쁜 일에 쓰일까봐 걱정하세요?

“좀처럼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네요.” 며칠 전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J씨는 괜스레 불안합니다. 분실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둔갑되는 일이 많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J씨는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정보를 공유하게끔 규제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분실·도난 단말기 유통이 차단돼서 이용자 피해가 줄고 보다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 • 휴대전화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



#### 개선 전

분실·도난 휴대폰 정보가 이동통신사 간에 공유되지 않아서 휴대전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컸음

#### 개선 후

모든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정보를 공유하게 돼 분실·도난 단말기 유통을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미래부, '14.2월)

# 149

승객 안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

## 지하철, 안심하고 타세요. 24시간 여러분을 지켜 드립니다.

“출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가해자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죠. 지하철 안에 CCTV라도 있었다면 분명한 증거 앞에서 발뺌을 못 했을 텐데요.” 매일 지하철을 타고 통근을 하는 직장인 N씨는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까봐 늘 불안합니다.

도시철도차량이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새로 구입된 모든 지하철과 경전철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됐기 때문입니다. CCTV 덕분에 지하철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고를 신속하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 21개 노선, 하루 89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예방



### 개선 전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 차량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 개선 후

**신규 구매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의무화**  
'도시철도법' 개정 (국토부, '14.1월)

# 150

작업장 안전을 위해, 사업장 내 대형문 설치 시 소형 수동문 허용

## 큰 문은 편하게 자동으로, 작은 문은 안전하게 수동으로!

A조선소의 창고엔 자동으로 작동하는 초대형 문이 있습니다. 초대형 문에는 손으로 열고 닫으며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따로 달려있습니다.

사업장에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할 땐 수동으로도 그 문을 여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비행장, 조선소와 같은 중공업 현장에 설치된 초대형 문은 현실적으로 손으로 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조선소처럼 별도의 수동문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동안의 법은 이런 경우까지 불법으로 규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 맞는 규제개선이 이뤄진 덕분에 작업장 환경이 보다 안전해졌습니다.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동설비 구축  
비용 절감



### 개선 전

동력으로 작동되는 대형문을 설치하는 경우 수동으로도 여닫을 수 있도록 설치

### 개선 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소형문을 설치해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부, '14.9월)